

새해 인사는 희망의 다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 『희망세상』 모든 독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복(福)’이란 금문(金文)과 갑골문(甲骨文)에서 확인되듯 모두 ‘신(神)에게 바치는 술통’의 뜻입니다. 복(福)은 보일 시(示)와 가득 찰 복(畝)의 합성어로 신에게 바치는 술통에 가득찬 술을 뜻합니다.

따라서 신(神)께 바친 정성이 그득하듯 신(神)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가득히 내려주십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福)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대해, 조상과 부모에 대해 할 일을 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우리의 인사는 따라서 “우리는 각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일의 순서를 잘 파악하고 실천할 때에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새해입니다. 우리는 다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바른 가치관을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벗들을 위해, 나아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바른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는 새삼 진지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때문에 새해 인사는 축복과 기도, 새로운 결단과 선택 그리고 희망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축복(benediction)이란, 라틴어의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칭송하다’(benedicere)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웃에게 칭찬이나 좋은 말을 들으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들으면 언짢습니다. 그것이 곧 저주(malediction)이기 때문입니다. 바른말은 축복의 대상이고 나쁜 말, 곧 거짓말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축복이란 사람에게 칭송받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칭찬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사에 정직해야 합니다.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을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기 위한 동서양의 전제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일의 순서를 잘 알고 말을 바르게 할 때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일에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일의 순서가 크게 잘못되었고 우리시대 우리 모두가 거짓말을 공인했다는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선거 결과 예측 보도를 듣고는 텔레비전을 켜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새롭게 희망을 꿈꾸고 『희망세상』 독자 모든 분들을 기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인 21일에 예정된 강진 다산강좌 원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1762~1836)의 생애와 사상을 훑어보면서 새삼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던 그가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노론 벽파가 득세하여 남인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사를 거부했던 천주교 신자들인 형제들과 친척동료들과 연관되었다는 죄목으로 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강진에서의 18년 유배생활 동안 실망과 좌절, 고독과 허무를 매일 매일의 독서와 사고, 저술로 극복하며 그는 오히려 사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암울하고 불의한 시대를 고민하면서 그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새로운 길잡이를 제시했습니다. 이 기간 중 그는 500여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꿈과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고독의 땅 유배지에서 오히려 큰 꿈과 희망을 일구어낸 정약용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의 어둡고 답답한 이 현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언제나 정직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주화의 여정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이에 올해 우리는 모든 일에 정성을 쏟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새해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세상』 독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